

# 정읍 문화유산 부지 지목 '사적지'로

무성서원·피향정 등 41 필지  
토지대장 등에 전·답 등 표기  
역사적 가치에 맞지 않아 변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전북 정읍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유산들이 마침내 격에 맞는 지목을 갖게 됐다.

정읍시는 과거의 행정 미비로 농지나 임야로 둑여 있던 41필지의 문화유산 부지를 조사해 부지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부지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호)'과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이다.

이 문화재들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등 행정 공부상에는 전(밭), 답(논),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았다.

시는 유적지의 위상에 걸맞은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화유산 지정 관보와 고시문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원지적과, 동학유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국가지정보물 제289호로 '호남제일정'이라 불리는 피향정.

등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진행해 과거 행정 절차상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민관이 협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라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전입지원금 15만원→50만원 인상

정착 인센티브 성격 강화…6개월 거주 20만원, 6개월 더 거주 30만원

정읍시가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돋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기준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입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 지급 구조는 전입 시민이 정읍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정착 인센티브' 성격을 강화했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시 1차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더 거주할 경우 2차로 30

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소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할 때 1인당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 지급은 기준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대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앱 충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해 지류형 상품권 등 대체 수단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에 전입 신고를 마친 시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읍시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8학기 최대 400만원)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급(20ℓ 최대 10매) 등 전입 시민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확대와 지급 방식 개선으로 전입 주민들이 지역에 보다 안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연 1억 창출 청년 부농 키운다

CEO 육성 프로그램 운영…바우처 지원 끝난 청년 23일까지 신청

"연 1억 소득 창출하는 부농 청년 키운다."

고창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도내 최초로 바우처 지원이 끝난 청년들에게 2년간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올해의 지원 대상자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청년 농업인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그간 출출한 현장 중심의 청년 창업농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창업농의 영농 정착률 96.8%란 성과를 냈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군은 올해부터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영, 마케팅, 스마트농업 교육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해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부농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기반이 약한 신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고창에서 활동 중인 토작 청년 농업인이 멘토로 나서 귀농·귀촌 청년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돋는 상생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이 자리 잡고 성장하는 것은 고창농업의 미래를 결정 할 중요한 열쇠"라며 "기회가 있는 농촌, 성장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적으로 살폈다.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119명에 대해 군은 개별 욕구와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어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정기 안부확인 ▲우유·생활지원 꾸러미 지원 ▲건강·의료·돌봄 서비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위험군으로 조사된 대상자 한분 한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 전 군민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선제 대응

고창군이 지역 내 고독사 방지를 위해 위험군에 속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선다.

고창군은 최근 고독사 고위험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19명의 취약계층 군민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이장 등이 참여해 실제 거주 여부,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적 고립도 등을 종합

## "천문관측, 1회 입장료로 종일 즐겨요"

남원시 천문과학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 다음달까지 운영



남원시 천문과학관.

남원시 천문과학관이 한번의 입장료로 주간과 야간에 두 번 이용 할 수 있는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

성인 기준 4000원을 내고 낮에 오면 밤에도 무료로 천문 관측과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야간 유료 입장객은 다음 날 주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 천문과학관은 천체투영실, 항공체험실, 과학전시실, 4D영상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행 시뮬레이터 체험, 과학 강연 등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실내외 체험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겨울밤의 맑은 하늘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과 주간 태양관측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관람객에게도 색다른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주·야간 즐길 수 있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겨울방학 동안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남원장학숙 수도권 신규 입사생 모집

춘향장학재단, 2년제 이상 34명…26일~2월3일 접수

남원 춘향장학재단이 수도권 '남원장학숙'에 대한 올해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4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과 같은 재학생이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또는 학생 본인 중 1인이 이상이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2월3일,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남원장학숙에 문의하면 알 수 있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